

오정희 「관계」의 여성 주체*

박 여 량**

요약

여성성의 외피를 벗겨 심도 있게 그 본질을 담아내는 오정희의 작품 세계는, 급진적인 페미니즘부터 전통적인 모성관까지, 작품의 여성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낳았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라캉의 성차를 근거로 나름의 기준을 세워 작품 속에서 여성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여성적 주체의 가능성과 한계 지점을 알아봄을 목표로 한다.

「관계」를 통해 생물학적 남성이면서도 비-전체로서 여성 주체로 존재하는 인물의 모순을 읽는다. 이 인물은 남근 기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종속되고 마는 모습에서 여성 주체의 한계적 모습을 본다. 더불어 전체-예외로만 이루어진 남근 기표 세계에 포섭되고자 하는 비-전체 인물들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도 해석해본다.

오정희의 세계는 전체와 예외로 이루어진 남근 상징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이 질서 안에서 생물학적 성차를 넘어선 여성 주체들은 끊임없이 주체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가부장적 지배 질서의 환상에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주체는 상징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의 지점에 머무르고 만다. 그러나 머무르거나 벗어나야 하는 것, 모두 남근 기표로 이루어진 세계가 비-전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이 선행함을 언급한다.

주제어 : 오정희, 라캉, 성차, 「관계」, 여성 주체, 히스테리

* 본 논문은 박여량의 2022년도 석사학위논문에서 발췌 정리하였음.

** 중앙대학교 석사 졸업

목차

1. 들어가며
2. 히스테리 주체 다시 읽기
3. 역 오이디푸스 관계
4. 두 개의 시선
5. 여성 주체의 한계 혹은 가능성
6. 나가며

1. 들어가며

오정희(1947-현재) 소설의 여성주의 연구와 정신분석학 연구는, 작가 특유의 모성과 여성성에 대한 감각으로 인해 텍스트의 해석과 연구의 결론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¹⁾ 오정희의 작품 세계는 모성과 여성성을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그 외피를 벗겨 본질을 끄집어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치열한 고민에서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여성성의 깊이

1) 황영미는 오정희 소설의 서술적 기법에서 페미니즘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 오정희 소설의 서술적 특징은 시간의 인식이 현재를 기준으로 흐르며, 일인칭 서술로 인해 서술 자아보다 경험 자아가 우세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빈번히 등장하는 내적 독백과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 상호호순적인 시각은 세계나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 애매함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서술 기법이 곧 페미니즘의 구현이라는 연구이다. 페미니즘은 이분법의 남성 대 여성의 대립 너머의, 존재론적 실존을 가능케 하는 애매함이라는 것이다. 오정희 소설의 시학은 곧 독자가 체험하는 방식으로 존재론적 실존을 느끼게 한다는 결론이다. 반면 이태동은 오정희 소설 세계 속 여성을 비록 남성에게 억압받지만, 성별을 초월한 생명의 근원으로 바라본다. 남성의 거부장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다. 가문의 생명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여성이고, 여성성의 실체를 탐색하는 것이 오정희 소설이라는 것이다.

이태동,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탐구:박경리, 박완서 그리고 오정희의 경우」, 『한국문학연구』 1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7, 67면.

황영미, 「덧이 된 가정에서의 존재론적 탐색:오정희의 초기 소설」, 『여성문학연구』 3,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218면.

가 형성됨에 따라 혹자는 오정희의 작품에서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발견하고 누군가는 신화적인 모성관을 발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오정희가 여성성에 부여한 깊이감 속에 나름의 기준을 세운다. 겹겹이 형성하고 있는 여성성의 의미를 파헤쳐 봄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라캉의 성차에 기반하여 오정희의 「관계」 속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관계」를 통해 여성 주체를 읽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설 속 화자인 ‘나’는 내밀한 심리 묘사 속 불안정함과 망상적 특징으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 신경증적 인물로 호명되었다. 최영자²⁾는 ‘나’를 히스테리적 발화 주체로 특징했다. 히스테리적 발화의 과장·과잉적 행동을 강조하며 며느리에 대한 망상을 히스테리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지표로 보았다. 히스테리의 원인은 자살한 아들의 외상적 기억이며, 이 기억이 며느리에 대한 도착적 환상과 망상으로 이어졌다는 연구이다. 이은서³⁾는 ‘나의 행동을 불안신경증의 증상으로 보았다. ‘나의 반신불수라는 신체적 특성과 늙어간다는 상태가 불안한 정서를 갖게 하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의식이 며느리를 근친상간의 대상으로 상상하는 이상 증후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의 신경증적 증후가 나타나는 인물이라는 연구이다.

이렇듯 「관계」의 ‘나’는 기존 연구에서 신경증, 특히 히스테리적 인물로 호명되어 왔다. 주목한 지점은 히스테리 주체로 인물을 분석한 기존 연구가 신경증 증상의 분석, 즉 신체 특성에 대한 연구에 그쳤다는 것이다. 히스테리 주체의 모색을 위해선 신체 특성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심리 특성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 주체의 힘은 타자와 나의 관계가 만드는 구조, 결국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의 주체성에

2) 최영자, 「오정희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히스테리적 발화양상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47면.

3) 이은서, 「오정희 소설의 신경증적 인물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12, 16면.

대해 고민하는 힘에서 오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계」 속 인물들의 신체 특성과 더불어 히스테리 증상의 심리 층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그렇기에 텍스트를 읽으며 주목한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물의 생물학적 성차를 넘어선 라캉의 성차 개념으로 인물을 살핀다. 라캉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이유는 우선으로 오정희의 소설이 남근 기표와 상징이 넘쳐나는 세계라는 것이고, 더욱 중요하게는 그 세계 속 여성 주체가 여성성에 대해 고민한다는 지점에서 이다. 라캉의 성차는 생물학의 성차와 다른, 주체가 상징적 남근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이 지점에서 남성 주체와 여성 주체가 나뉘고, 여성 주체는 비-전체의 주체로서 남근 질서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기에 오정희의 주체들인 남근 상징이 넘치는 세상에서 여성성에 대해 고민하는 주체와, 라캉의 남근 질서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지닌 여성 주체가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라캉의 이론을 해석의 근거로 삼는다.⁴⁾

둘째로 여성 주체가 지닌 히스테리 주체로서의 증상을 확대한다. 기존 「관계」에 관한 연구는 히스테리 증후와 증상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아마 히스테리를 증상으로 파악한 프로이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이론을 발전하여 히스테리의 구조적 관점에 주목한

4) 라캉에게 여성 주체 혹은 여성 지위란 차이를 인정하는 존재이다. 자신이 분열된 존재라는 것을 남근 환상 속에서 은폐하지 않는다. 여성 주체는 남근 질서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성 주체의 향유 방식은 히스테리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히스테리 주체는 자신을 타자로 만드는 힘이 있다. 그녀는 주체의 자리에 타자로서의 자신을 남기며 스스로 자신을 향유한다. 따라서 히스테리 주체는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팔루스 향유를 뛰어넘는 '다른 향유'이다. 여성의 향유인 '다른 향유'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타자의 인정 때문이다. 타자뿐만 아니라 나 또한 타자로 인정하는 것, 이는 정신분석학의 목표와 맞는 지점이다. 전체 질서로서의 주체가 아닌, 개별자로서 주체를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 차이의 인정을 통해 타자의 균열, 나아가 나의 균열을 인정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이 분석하는 주체의 목표 지점이다. 여성의 향유, 즉 대타자의 기표 속 결여의 지점을 알게 되는 것은 끊임없는 의미 지연 속 무한히 이어지는 대타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생물학적 남자든 여자든 모든 주체는 여성의 위치를 취함으로써 주체를 소외시키는 대타자를 폐기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라캉의 성차 이론을 따르는 만큼, 히스테리 주체를 분석하는 데 있어 그 증상의 범위를 심리 층위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성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은 주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물의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 차원과 인물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히스테리 주체를 분석한다.

2. 히스테리 주체 다시 읽기

「관계」⁵⁾는 작중 화자인 ‘나의 아들의 제삿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반신불수의 몸을 가진 ‘나의 심리 서술이 주로 이루어지며,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나는 수분네를 기다리지 않고 몸을 일으켰어. 몸의 비중이 한곳으로 쏠리면서 나는 오른쪽으로 넘어졌어. ……단장이 없이 한 걸음이라도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했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배밀이를 해도 무방하겠지. 갓난아이들처럼 배밀이를 할 때마다 나는 내가 직립인이었던 시절이 까마득히 그림계 생각되곤 했어.⁶⁾

‘나는 몸을 일으키자마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반신불수의 몸을 지닌 사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배밀이를 해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거동이 자유롭지 않다. 그의 하루는 온종일 누워 가사도우미에게 부탁하고, 외출한 며느리의 일과를 망상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이야기는 그의 사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반신불수 특히 그의 생물학적 거세라는 신체 특성은 집 한 칸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행동과 사

5)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17.

6) 오정희, 위의 책, 187면.

념을 구체화한다.

나는 의수(義手)처럼 달려 있는, 이미 내 것이라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 마비된 왼손을 오른손으로 집어 올려 어항의 불룩한 배에 갖다 대었지. 역시 아무런 감각도 없이 맥없이 흘러내리고 말았어. 다시 왼손을 끌어 당겨 어항 속에 집어넣었어. 손이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물속으로 떨어졌어.⁷⁾

그의 생물학적 거세는 어항과 의수의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된다. 생명의 이미지를 내포하는 물과 그 물을 담고 있는 어항의 불룩한 배는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건강한 자궁을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그의 마비된 왼손은 맥없이 떨어지고 만다. 남근이 초월적 기표의 위치를 선점하게 만들어주었던 상승의 이미지, 중력을 거스름으로써 생명 잉태를 가능하게 했던 힘과 대비되는 하강, 떨어짐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기어 다닐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반신불수라는 설정에 생물학적 거세의 이미지를 한 번 더 더함으로써 그의 남성성을 확실히 말소해버린다.

마음이 너무도 쓸쓸해져서 불도 켤 수 없었어.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나는 소리 내어 말하며 방 안을 더듬었어.

결국 생각해낸 것은 똥을 누자는 것이었어. 뒷목에 놓인 요강을 끌어 당겨 걸터앉아 아랫배에 힘을 주었어. 그리고 물큰물큰 피어오르는 냄새를 들이마시며 나는 참 외롭구나, 외롭구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비참한 늙은이인 듯 여겨졌어. 불현 듯 축축해지는 눈자위를 누르고 나는 요강에서 피어오르는 그 정다운 냄새를 맡으며 외로움을 즐겼지.⁸⁾

7) 오정희, 앞의 책, 178면.

8) 오정희, 앞의 책, 189면.

그렇기 때문에 거세된 그의 자위행위는 배변이라는 퇴행한 형태로 나타나다. 남근의 쾌락을 누리지 못한 채 항문의 쾌락을 즐기며 남근기 이전에 유아들이 누렸던 최초의 만족 체험에서 만족감을 찾는다. 이렇듯 지속하여 강조되는 그의 생물학적 거세 사실은 그가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 남근을 향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할 남근 기표를 찾아 끊임없이 상징체계를 찾아 헤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생물학적 거세 사실은, 여성 주체가 갖는 히스테리 증후와 묘한 동일 감을 형성한다. 히스테리란 본질적으로 주체를 말소하려는 방식이다. 주체의 자리에 타자를 세우고 자신은 타자의 욕망 대상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렇기에 히스테리 주체는 타자의 욕망에 예민하며 타자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끊임없이 알아내려 하는 심리 특징을 갖는다.

더구나 이러한 부끄러움을 내 어조에서 교묘히 숨기기에 나는 너무 서툴렀고 그 서툰을 그녀가 간파했을 때 그녀는 내 물음을 은근한 비난이나 질책으로 받아들일지도 몰라. 그럴 경우 그녀에게 지워지는 감정적 부채감이 표면에 드러낼 부자연스러움과 당혹감은 피할 수 없으리라 저어한 때문에 나는 지나가는 말처럼 던지시 묻는 것으로 궁색한 위장을 한 것이야.⁹⁾

나는 잠시 그녀의, 연지가 붉게 칠해진 입술을 바라보다가 슬몃 등을 돌리며 대답했어. 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어. 내 얼굴에 나타날 어떤 종류의 표정도 그녀에 대한 부당한 폭력이라고 생각된 탓이었지.¹⁰⁾

그녀가 문을 열어놓은 채 외출을 한다면 모를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

9) 오정희, 앞의 책, 177면.

10) 오정희, 앞의 책, 180면.

어날 리가 없을 터인즉 나는 결코 그 방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결론에 부딪히곤 하는 것이었지. 나는 늘 어린애 같은 호기심과 안타까움으로 문을 열고자 하지만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미칠 듯한 그리움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어.¹¹⁾

‘나’가 자신을 말소하며 자신의 자리에 주체로 세우는 대상은 ‘그녀’로 나타나는 며느리이다. ‘나’는 지속해서 며느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지레짐작하고, 그녀의 욕망을 통해 자신의 모습과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며느리가 비난과 질책으로 받아들일까 봐 자신의 말을 넘지시 묻는 투로 꾸민다거나, 그녀의 기분이 나빠질 것을 저어해 아예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는 등 끊임없이 자신을 말소한다. 결국 며느리가 외출하고 난 후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고 싶다는 어린애 같은 호기심이 치밀어 오른다. 이는 그녀의 사적인 방을 살핌으로써 그녀의 욕망을 속속들이 알고 싶다는 것, 그녀의 욕망을 알아채 자신이 그녀의 욕망 대상으로서 위치하고 싶다는 것을 나타낸다. ‘나’가 ‘그녀’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심리는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야. 전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그네가 ‘에덴’에 나가던 날부터였어. 문만 잠겨 있지 않았던들 나는 상대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에덴’으로 찾아가면 그네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일러줄 텐데. 혹시 결혼 전에 좋아지내던 사내일지도 몰라. 요즘 그네에게 달리 사내가 생긴 것이 아닐까. 그럴지도 몰라.¹²⁾

히스테리 주체는 타자가 자신을 계속하여 욕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타자를 항상 불만족의 상태로 남겨두려 한다. 혹은 타자가 자신이 아닌

11) 오정희, 앞의 책, 188면.

12) 오정희, 앞의 책, 189면.

이성을 욕망의 대상에 둘 수도 있다고 가정하며, 타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는 한편으로 다른 이성을 다시금 주체의 자리에 세우며, 타자의 욕망의 대상인 다른 이성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말소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선 타자인 며느리의 욕망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암시된다. ‘에덴’은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장소로 소개된다. 그녀가 ‘에덴’에 나간 이후부터 걸려 오기 시작한 의문의 전화가 그녀의 욕망 대상인 다른 이성의 전화라고 상상한다. 그의 상상 속에서 그는 다른 이성과 며느리가 만날 수 있게 며느리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지만, 어찌 됐든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그는 문이라는 장벽을 핑계 삼아 며느리의 욕망 대상인 다른 이성과 며느리의 만남을 영원히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이는 다른 이성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히스테리 주체가, 상상 속에서조차 타자의 욕망을 불만족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난 장면이라 볼 수 있다.

3. 역 오이디푸스 관계

시아버지인 ‘나’가 며느리에게 그리도 집착하여 근친상간 뉘앙스의 이야기가 탄생한 연유, 며느리가 ‘나’의 타자로서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후 ‘나’의 회상을 통해 밝혀진다. ‘나’는 젊은 시절 테니스를 하며 허무감을 달래보았지만, 달래지지 않는 권태로움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며 일상의 궤도를 찾게 되고, 일상 속에 태어난 아들은 권태로운 삶의 해답이 되어 줄 만큼 인생의 구원자로 나타난 존재였다. 하지만 아들은 전쟁터에 가 다리를 잃었고, 석 달 후 휴가 때 정구장에서 엽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한다. 그의 자살 이후 ‘나’는 시애비로

서 며느리에게 빚을 갚고 싶은 마음이 인다.

그것은 바로 그 애 나이때의 내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도 닮아 있었는지 몰라. 자신의 체력과 기교가 절정기에 도달해 있음을, 더 이상 공이 완벽하게 맞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들던 절망감으로 나는 자살을 생각했었지. 죽음의 의식(意識)은 너무도 투명해서 한치의 빗나감도 용서치를 않지. 그 무렵 나는 꼭 절벽 끝에 선 듯한 기분으로, 라켓을 휘두름으로써 내 속에서 돌아나는 그 어쩔어쩔한 허무감을 죽이고 또 죽였어. 그러나 마침내 그러한 행위로 인해 나 자신이 살해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결국 나는 비겁했던 탓에 라켓을 내던지고 결혼을 하여 일상의 궤도에 몸을 실어버린 것이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나날의 양식을 섭취하며 알맞은 온도에 탐닉하는가에 대해 묻지 않게 되었어. 때때로 천의 올이 튀어 오르듯 그것이 굳이 고개를 들 때도 있었으나 다행히도 아이가 생겼어. 모든 의문에 대해 아이는 훌륭한 답변이었어.

...

그 후 그 애는 전쟁터로 갔어. 그곳에서는 줄곧 비가 오고 있다는 엽서가 한 번 왔었지. 정말 그 내용을 증거하듯 엽서의 잉크 자국이 몹시 번져 있어서 마치 글씨마다 줄줄이 빗물이 흐르는 듯했어. 그리고 그 애는 두 다리가 잘려서 돌아왔고 석 달 후엔 엽총으로 머리를 쏘아 죽어버렸어.

그 애가 죽은 것은 정구장에서였어. 다리가 잘린 그 애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몰라. 눈이 녹아 질퍽한 땅 위에 진흙빛으로 영긴 피를 보고 나는 구역질이 날 듯했었지.

그 애가 죽은 뒤 그네도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지. 그네는 분개하고 있는 듯했어. 그런 유의 배반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야.

그 애를 화장하고 나서 나는 그네에게 시에비로서의 빚을 갚고 싶어

했지.¹³⁾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의 삼자관계를 자세히 살피면 일종의 오이디푸스 관계가 눈에 띈다. 오이디푸스 관계의 실마리는 ‘나’가 아들인 ‘그 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에서 시작해 관계의 구조를 파악해 나갈 수 있다. ‘나’는 회상 속에서 자신의 젊었을 적 모습과 ‘그 애’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도 닮아’있었던 것으로 회상한다. 회상 속에선 ‘그 애’가 테니스를 치는 몸짓 하나하나뿐 아니라 그 애의 사념까지도 자신처럼 오랜 시간 자살을 생각한 젊은이로 암시된다. 살아갈 이유가 되어 준 아들은 절대적 존재였고, 그는 자신이 젊었을 적 비겁해서 끝내 행하지 못한 자살로 생을 끝마친 사내가 되었다. 이 순간 ‘나’는 며느리에게 빛을 갚고 싶다는, 그녀와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욕망이 인다.

이는 평소 며느리의 욕망 대상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형성될 수 있는 오이디푸스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지금 ‘나’에게 절대적 존재로 남은 사람은 아들이다. 오이디푸스 관계가 형성되는 남근기 시절, 유아는 자신에게 남근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동시에 유아는 어머니를 욕망하지만, 어머니의 욕망 대상은 남근이 있는 절대적 존재인 아버지였다는 걸 깨닫는다. 따라서 유아는 어머니의 근원 욕망의 대상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며, 결국 아버지와 자길 동일시하게 되는 히스테리 주체가 된다. 이는 남근을 가진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이 남근을 가진 존재라는 환상 속에서 며느리의 욕망 대상이 되고자 하는 ‘나’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나’의 환상은 다음의 인용구에서 나타난다.

나는 그네의 납빛 이마와 따스하고 부드러운 허벅지를 생각하지. 난

13) 오정희, 앞의 책, 193면.

그네에게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있지. 그러한 내 능력을 의심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¹⁴⁾

‘나’는 생물학적으로 거세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환상 속에서 자신의 생식 능력을 굳건히 믿고 있다. 이때의 방점은 ‘나’가 여성 주체임에도 남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히스테리성 동일시의 주체라는 것에 찍힌다.

4. 두 개의 시선

그렇다면 왜 ‘나’를 생물학적 남성이 남근이 있다고 상상하는 일반적 모습이 아닌, 생물학적 남성이 히스테리성 동일시를 하는 주체로 해석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우선하여 ‘나’는 생물학적으로 거세된 남성이다. 이때 「관계」 텍스트 내에선 ‘나’를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등장한다. 하나는 ‘그네’의 형식적인 가부장을 대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사 도우미인 ‘수분네’의 비꼬기 방식이다. ‘그네’로 나타나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인 ‘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다.

「관계」는 작중 화자인 ‘나’를 중심으로 ‘나’의 아들의 제삿날에 일어나는 하루 간의 이야기이다. 며느리인 ‘그네’는 생전 자신의 남편이었던 ‘나’의 아들의 제삿날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많이 먹거나, 늦은 시간까지 ‘에덴’에 나가 춤을 추며 집에 들어오지 않음을 암시하는 서술로 이야기는 끝난다. 작중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대화 충돌은 이야기의 시작부인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 아침 시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부분이 전부다. 그들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작중 화자인 ‘나’의 상념 부분을 들어내고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전체 대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4) 오정희, 앞의 책, 200면.

- 시아버지 오늘이 며칠인 줄 아느냐?
 며느리 네, 아버님. 이월 스무닷새예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아버님은 알고 계셨어요?
 시아버지 알고 있었다.
 며느리 용서하세요. 그런데도 전 오늘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었군요.
 시아버지 외려 내가 민망스럽구나. 산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의무나 책임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며느리 아버님.
 시아버지 어서 가보렴. 시간이 늦겠다. 어서 가보래두.¹⁵⁾

시아버지인 ‘나’는 아들의 제삿날인 오늘, 가족의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타자의 위용을 갖춘 모습으로, 며느리 또한 제사장 앞에서 ‘용서하세요’라는 발화를 통해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발화 행위는 표면적이고 위장적인, 형식화된 가부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며느리는 형식화된 가부장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집안을 벗어나 ‘에덴’이라는 장소로 끊임없이 탈출하기 때문이다. ‘에덴’은 춤이란 대화 수단을 통해 남녀 불구하고 ‘이상하게 똑같아지는 공간’¹⁶⁾으로 표현된다. 언어나 제도, 상징체계를 넘어 춤을 추는 동안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일종의 화해로움이 넘쳐나는 해방공간에서 실제의 존재들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춤을 춘다. 며느리는 대타자의 이름을 덮어쓴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에는 그의 위엄을 인정하는 척 하지만, 그녀의 실제 행동은 밤늦게까지 ‘에덴’을 벗어나지 않고 형식화된 가부장의 탈을 쓴 집으로의 귀가를 늦춘다.

15) 오정희, 앞의 책, 177면.

16) ‘글썩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선 이상하게 똑같아져요. 아주 전염도가 높은 악성의 전염병 같지요. 시시하고 천덕스러운 얘기와 몸짓으로 시종하지만 뭐랄까요, 일종의 화해로움이 이루어지고 있지요.’(오정희, 앞의 책, 186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를 보듯 대한다. 이는 남성성을 잃은 아버지의 자리에 대신 대타자를 세움으로써 어떻게든 호랑이라는 명백이라도 유지하려는 남성 주체의 한계, 형식화된 가부장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생물학적으로 거세된 남성에게 대타자의 권위로 남성성을 채워줄 시, 일종의 사생아 로망스의 변형된 형태가 된다. 사생아 로망스의 사생아들은 아버지를 제거하고 부인하며 성장한다. 결국 사생아 로망스의 개별 주체인 아버지들은 지워지고 그 자리에 대타자가 들어선다. 사생아 로망스는 아들의 영웅 서사, 성장소설이 되며 남성성을 잃은 아버지의 자리에 어떻게든 대타자를 세워 이름만 남은 아버지와 그것을 이어받는 아들의 서사로 끝내는 남성 주체의 방식이다. 이는 남근 기표를 벗어날 수 없는 방식이며, 결국 남근 기표를 잃고 실재를 헤매는 아버지라는 개별 주체는 지워지는 방식이다. 「관계」의 ‘나’는 이러한 남성 서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개별 주체로 설 수 있는 히스테리성 주체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작중 화자인 ‘나’가 실재할 수 있는 이유는, 더는 자신을 상징해주는 남근 기표가 없다는 것을 어렵פות이라도 깨닫기 때문이다. 이를 지속해서 일깨우는 것은 가사 도우미로 등장하는 ‘수분네’이다. ‘수분네’는 남성성을 잃은 ‘나’에게 며느리의 형식화된 가부장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타자의 위용을 세우는 것이 아닌, 그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남근 중심의 상징체계에 균열을 발생시킨다.

커튼을 닫으라고 이를 참이었으나 어둠 속에 나타난 수분네의 물기 돋은 팔이 청동 빛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자 불현 듯 견딜 수 없이 두려워졌어. 제발 나가달라고 소리를 쳤지.

그러나 수분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느릿느릿 커튼을 닫았어. 아귀를 꼭 맞춰 몇 번이고 고쳐 닫고서야 나갔어.¹⁷⁾

17) 오정희, 앞의 책, 183면.

‘수분네’는 자신의 고용인을 무시한다. 고용인을 넘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로서의 대타자를 무시한다. 자신의 일만 마치면 된다는 듯 어둠 속에서 나타나 아귀를 꼭 맞춰 커튼을 단아버린다. 어떤 상징 기표는 무시만으로도 균열에 큰 충격을 가하는데, 그것이 가부장 사회 속 불가침의 영역으로 나타났던 초월적 기표인 남근이라면 충격은 배가 될 것이다. ‘수분네’는 단순 무시를 넘어 ‘나’를 ‘무덤 속의 벌레’¹⁸⁾라고 호명한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건 아버님, 사내, 가장 등 남근을 중심으로 한 상징체계였으나 ‘수분네’는 그 상징체계에 균열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이미 남성성을 잃은 자신을 대타자라는 껍질로 둘러싸고 있던 알팍한 껍데기를 부숴버리는 망치이며, 잠시나마 실재계로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을 부여한다. 결국 통합된 남근 질서 속에서 벗어나 개별 주체로 설 수 있는 여성 주체로서의 가능성이라는 씨앗을 심는 것이다.

5. 여성적 주체의 한계 혹은 가능성

‘나’가 여성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로 시아버지와 며느리, 아들 간의 삼자관계에서 탄생한 오이디푸스 관계에서 기인한 ‘나’의 히스테리성 동일시 주체로서의 모습이다. 히스테리성 동일시란 자신을 정박할 남근 기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근이 있다고 환상하는 것, 즉 자신이 여성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남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히스테리성 동일시의 주체로서 지속해서 며느리의 욕망이 무엇일지 지레짐작하고, 그녀의 욕망을 통해 자신의 모습과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남근을 가진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신이 남근을 가진 존재라는 환상 속에

18) “아, 당신은 무덤 속의 벌레예요. 난 나가버리겠어요.” (오정희, 앞의 책, 197면.)

서 며느리의 욕망 대상이 되고자 한다. 둘째로 가사 도우미인 ‘수분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남근 기표에 종속된 상징체계에 지속하여 균열을 낸다. 이는 기존에 생물학적으로 거세된 ‘나’에게 남성성을 부여해주었던 상징체계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순간적으로나마 남근 기표에서 벗어나 실제로 설 수 있는 순간을 부여한다. 타인의 욕망에 적극적인 히스테리 주체, 남근 기표에서 벗어난 개별 주체는 여성 주체만이 가능한 ‘다른 향유’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나’의 여성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이야기의 결론부를 살펴본다.

나는 그네의 납빛 이마와 따스하고 부드러운 허벅지를 생각하지. 난 그네에게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있지. 그러한 내 능력을 의심해본 적은 한번도 없어.

자, 좀더 편한 자세로 몸을 눕히고 눈을 붙이자. 내가 눈을 떴을 땐 그네도 들짐승처럼 날렵한 발목의 언 모래를 털며 돌아와 있겠지. 결코 되살아날 리 없는 아들의 망령을 위해, 그네를 품에 안고 스무 명, 서른 명, 아니 그 이상의 자식을 잉태시키려면 한숨 폭 자두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길이지.¹⁹⁾

앞서 논의했듯 남성 주체의 남근이 있다는 환상이 아닌 히스테리 주체의 남근이 있다는 환상이라는 전제로 논의를 이어 나간다면, 「관계」는 히스테리성 동일시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생물학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거세된 존재임에도 자신의 생식 능력을 확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야기의 마무리에 두 존재의 충돌이 보인다. 하나는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생식 능력이 없어 남성성을 잃은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비-전체로서의 여성 주체이다. 자신을 정박해 줄 남근 기표가 없이, 남근 질서에 포섭되지 못한 인물이다. 두 존재가 충돌하니 가부

19) 오정희, 앞의 책, 201면.

장이어야 하는데, 가부장이 되지 못한 인물이 탄생한다. 그는 남근 기표 밖에서 비루한 개별 존재로서 있다. 그러나 「관계」는 ‘나’가 여성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주체의 가능성인 다른 향유를 누리는 모습으로 끝맺음하지 않는다. ‘나’는 ‘수분네’의 분열 시도에도, ‘그네’의 ‘에텐’으로의 끊임없는 탈출을 보면서도 환상을 버리지 않는다. 자신은 생식이 가능하다는, 남근 기표가 있다는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식을 위해 반신불수의 몸을 높히고 눈을 붙인다. 결국 여성 주체의 가능성인 ‘다른 향유’로 나아가지 못한 채, 남근 기표에 종속되고 마는 한계의 모습으로 끝난다. 이는 남근 기표 밖에서 개별 주체로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남근 기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개별성을 지워버리는 꼴이다. 남성 주체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포섭되고자 하는 혹은 되어야만 하는 생물학적 남성의 단상으로도 보인다. 이를 통해 반신불수의 몸을 가진 ‘나’가 생식 활동을 꿈꾸며 잠이 드는 모습으로 끝나는 허상을 담은 결말을, 전체-예외로만 이루어진 남근 기표 세계에 포섭되고자 하는 비-전체 인물들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도 해석해본다. 당연하게도 이는 남근 기표로 이루어진 세계가 비-전체를 인정해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선행한다.

6. 나가며

「관계」의 ‘나’가 기존 연구에서 신경증, 특히 히스테리적 인물로 호명되어 왔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히스테리 주체의 모색을 위해선 증상의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특성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심리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차적으로 ‘나’의 신체 특징은 성적 불구이다. 그렇기에 거세된 그의 자위행위는 배변이라는 퇴행한 형태로 나타난다. 남근의 쾌락을 누리지 못한 채 향문의 쾌락을 즐기며 남근

기 이전에 유아들이 누렸던 최초의 만족 체험에서 만족감을 찾는다. 이렇듯 지속하여 강조되는 그의 생물학적 거세 사실은 그가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 남근을 향유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정박할 남근 기표를 찾아 끊임없이 상징체계를 찾아 헤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생물학적 거세 사실은, 여성 주체가 갖는 히스테리 증후와 묘한 동일 감을 형성한다. 나아가 히스테리란 본질적으로 주체를 말소하려는 심리 상태를 특징으로 한다. 주체의 자리에 타자를 세우고 자신은 타자의 욕망 대상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렇기에 히스테리 주체인 ‘나’에게서 타자, 즉 며느리의 욕망에 예민하며 그녀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끊임없이 알아내려 하는 심리 특징을 발견했다.

히스테리 주체로서의 연장선상에 아버지와 아들의 위치가 바뀐 역 오이디푸스 관계를 발견했다. ‘나’는 죽은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신이 남근을 가진 존재라고 환상한다. 또한 환상 속에서 며느리의 욕망 대상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히스테리 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사하다. 자신에게 남근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유아는, 어머니의 욕망 대상이 남근이 있는 절대적 존재인 아버지임을 알게 된다. 결국 유아는 어머니의 근원 욕망 대상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며,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히스테리 주체가 된다. 이처럼 히스테리 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나’의 심리 상태와 동일한 구조를 띤다.

이러한 흐름에서 ‘나’를 생물학적 남성이 남근이 있다고 상상하는 일반적 모습이 아닌, 생물학적 남성이 히스테리성 동일시를 하는 주체로 해석하고자 했다. 「관계」 텍스트 내에선 ‘나’를 바라보는 두 가지 방식이 등장한다. 하나는 ‘그네’의 형식적인 가부장을 대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사 도우미인 ‘수분네’의 비꼬기 방식이다. 특히 ‘수분네’의 방식에 주목했는데 가부장 사회 속 불가침의 영역으로 나타났던 초월적 기표인 남근을 향한 무시는, 무시만으로도 균열에 큰 충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수분네’는 단순 무시를 넘어 ‘나’를 ‘무덤 속의 벌레’라고 호명하며 ‘나’를 둘러

싸고 있던 아버님, 사내, 가장 등 남근을 중심으로 한 상징체계에 균열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이미 남성성을 잃은 자신을 대타자라는 껍질로 둘러 싸고 있던 알팍한 껍데기를 부숴버리는 망치이며, 잠시나마 실재계로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을 부여한다. 결국 수분네의 방식은 '나'에게 통합된 남근 질서 속에서 벗어나 개별 주체로 설 수 있는 여성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관계」는 '나의 히스테리성 동일시의 모습을 보이며 끝맺음한다. 자신은 생식이 가능하다는, 남근 기표가 있다는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식을 위해 반신불수의 몸을 눕히고 눈을 붙이는 결말이다. 결국 여성 주체의 가능성인 '다른 향유'로 나아가지 못한 채, 남근 기표에 종속되고 마는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난다고 판단했다. 남성 주체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포섭되고자 하는 혹은 되어야만 하는 생물학적 남성의 단상으로도 해석해본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오정희, 『불의 강』, 문학과지성사, 2017.

2. 단행본

권택영, 『영화와 소설 속의 욕망이론』, 민음사, 1995.

홍준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아난케, 2005.

Homer, Sean 저, 김서영 역, 『라캉읽기』, 은행나무, 2006.

3. 논문

강유정,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겉기'의 의미」, 『배달말』 62, 배달말학회, 2018.

김민정, 「1970년대 여성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연구 시론」, 『현대문학연구』 48, 2012.

김석, 「아버지의 위상 - 금지와 향유의 기원」, 『기호학연구』 51, 2017.

김지혜,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체화와 수행:유년의 뜰, 중국인 거리, 저녁의 게임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7, 2017.

문장수, 「남녀성차에 대한 라캉의 구조적 정의와 그 문제」, 『철학연구』 129, 2014.

양석원, 「라캉과 히스테리: 욕망에서 주이쌍스로」, 『비평과 이론』, 19.1, 2014.

_____, 「여성과 남근: 여성의 사랑에 관한 라캉 이론」, 『현대정신분석』 19.1, 2017.

이은서, 「오정희 소설의 신경증적 인물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2.

이은애, 「언어로 존재하는 섬, 「이어도」의 정신분석적 독해 - 환상, 욕망, 반복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2, 2016.

이은애, 「'statusnascendi'에서 죽음에 이르는 길, 또는 "무엇인가 그리워"에서 '죽음'에 이르는 길-환상수첩」을 중심으로 한 김승욱 소설의 정신분석적 독해」, 『한국문예비평연구』 제56집, 2017.

이태동,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탐구:박경리, 박완서 그리고 오정희의 경우」, 『한국문학연구』 19, 1997.

이혜원, 「최승자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批評文學』 59, 2016.

정문영, 「라캉의 정신분석학에서의 개인 주체의 위상」, 『비평과이론』 2.1, 1997.

장시기, 「라캉의 언어관과 정신분석학의 문화연구」, 『비평과이론』 14.2, 2009.

정은경, 「사랑의 실패들」, 『국어문학』 68, 2018.

최수환, 「오정희 소설의 젠더정치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최영자, 「오정희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히스테리적 발화양상을 중심으로」, 『인문

과학연구』 12, 2004.

황영미, 「덧이 된 가정에서의 존재론적 탐색: 오정희의 초기 소설」, 『여성문학연구』 3, 2000.

<Abstract>

Female subject in *Relation* by Oh Jung-hee

Bak, Yeorang

This paper establishes a standard based on Lacan's sexual difference. Exploring femininity in Oh Jung-hee's short story. Furthermore, it aim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female subject. In *Relation*, we read the contradiction of a person who is a biological male but also exists as a female subject as a 'not-whole'. This is based on the theory of sexual difference that goes beyond biological sex differences. This character had the potential to escape the phallic signifier. Nevertheless, it appears to be subordinated to the phallic signifier. Through this, we see the limits of the female subject. In addition, it is interpreted as a story about the fantasy of not-whole characters.

Key words: Oh Jung-hee, *Relation*, Lacan, Sexual difference, Female subject, Hysteria

투 고 일: 2022년 4월 26일

심 사 일: 2022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2년 9월 22일